

국내 용서 연구 동향 분석 :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1990~2012)*

이영수 김광수* †
서울마포초등학교 서울교육대학교

본 연구는 국내 용서 연구의 현황을 알아보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심리학적 용서 연구 총 84편을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대상은 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인, 초등학생,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인과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연구내용은 관련요인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효과연구, 이해연구, 척도개발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와 실험연구, 개발연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례연구는 매우 적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의미와 제한점, 그리고 국내 용서 연구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 연구 동향, 연구 현황, 용서 연구 동향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3)을 수정 보완한 것임.

†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김광수 /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학과 / (137-742)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0 Tel : 02-3475-2537 / E-mail : drks419@snu.ac.kr

서론

‘용서(forgiveness)’는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해결방법(오영희, 2008)의 하나로, 적극적인 자기 치유와 자기 회복을 통해 부당하게 피해 입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박종효, 2003; 오영희, 1995, 2006; Enright & Fitzgibbons, 2000). 또한 용서는 상처와 갈등으로 인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바람직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며 용서를 받은 대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실천하게 하는 의무감과 동기를 부여해주시기도 한다(김광수, 2002; 오오현, 2005). 그뿐만 아니라 용서는 종교, 지역, 국가 간에 일어나는 갈등을 치료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손운산, 2004).

이런 중요성과 실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오랫동안 종교적, 철학적 영역에서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으로만 다루어져 오다가(김광수, 2001, 2004; 오영희, 1995, 2008) 1980년대 들어서야 교육과 상담 및 심리 치료 영역에서 대인관계 갈등 해결과 관련된 용서의 기능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용서의 경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다. 용서에 대한 기존의 관념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 용서에 대한 경험과학적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용서 연구는 ‘용서란 무엇인가’ 하는 용서의 이해,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도식이 발달되는가’하는 용서의 발달, ‘용서는 어떻게 혹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가’ 하는 용서의 과정, ‘용서는 어떤 유익과 효과가 있는가’ 하는 용서 개입 및 효과, 용서와 관계있는 변인들 등의 영역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김광수, 2002, 2004; Worthington, 2005; Fehr, Gelfand, & Nag, 2010).

용서에 대한 경험 과학적 연구에서 가장 널리 수용되고 있는 용서의 정의는 Enright와 인간발달연구회의 정의이다. 이들은 용서를 인지, 정서, 행동적 체계의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여 ‘부당하게 상처 준 사람에게 당연히 품을 수 있는 분노, 부정적 판단, 그리고 냉담한 태도를 기꺼이 버리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없는 연민, 관용, 심지어 사랑을 베푸는 것(Enright, Freedman, & Rique, 1998)’이라 정의하였다. 용서 연구는 이처럼 용서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내리는 것을 시작으로, 용서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며, 실제 상황에서 어떤 심리적 과정을 거쳐 용서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용서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용서 과정모형을 만들고 용서 척도와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러 참여자를 대상으로 용서의 효과성을 검증해 왔다. 용서의 효과가 차츰 입증되면서 용서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Enright & Fitzgibbons, 2000; 김광수, 2004).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2005년부터 2015년 까지 용서 연구의 주요 주제로 용서 개념에 대한 다양한 탐색과 이해, 용서를 가장 잘 측정하는 방법, 용서에서의 종교의 역할, 개인적·양자관계적·사회적 수준에서의 용서 과정, 용서의 유익, 용서의 댓가나 한계 및 문제점, 개인·관계·사회 공동체에서 용서 증진을 위한 효과적 방안,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용서의

역할과 기능, 자기 용서 등이 제기되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Worthington, 2005). 특히 자기 용서에 대한 다각적인 탐색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Hall & Fincham, 2005; 2008).

우리나라에서 용서에 관한 경험 과학적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90년대이다(박종효, 2006b). 오영희(1990)의 용서 발달 연구를 필두로, 용서의 개념과 의미구조를 분석(이경순, 1998; 2002)하고 용서의 심리적 과정을 밝히려는 연구(김기범, 임효진, 2006; 위경선, 윤가현, 2011; 이경순, 2008)가 이루어졌으며, Enright의 용서 과정 모형을 기초로 용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김광수, 1999; 김광수, 김경집, 2007; 오오현, 2002; 2005)을 개발하여 적용하려는 시도도 이어졌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용서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인의 한과 상처, 그리고 용서를 조사(오영희, 1995; 2005; 2006)하고 한국인 용서척도를 개발하는 연구(오영희, 2008; 2010; 2011; 2012)가 진행되었으며, 용서특질척도(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신념척도(조수아, 권석만, 임영진, 2011), 가족용서척도(이윤희, 서수균, 2012), 그리고 용서과정척도(정성진, 2011)도 개발되었다. 또한 초등학생(김광수, 김경집, 2007; 김광수, 하요상, 2006), 비행청소년(황혜자, 김태훈, 2006), 여성 암환자(태영숙, 윤수정, 2006), 여성 노인(장우심, 2010), 불안전애타움을 가진 자녀(김남순, 조선자, 2007; 김은설, 2010) 등 다양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용서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몇 편의 동향연구(김광수, 2001; 2002; 2004)와 개관연구(박종효, 2006a)도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용서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용서 관련 연구물은 꾸준히 축적되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용서'를 키워드로 검색해본 결과, 15,000여 편에 달하는 국내 논문과 단행본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용서'와 '심리' 그리고 '용서'와 '상담'의 키워드 조합으로도 각각 1,100여 건과 800여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다.

이렇게 용서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진행된 용서 연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국내 용서 연구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고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여 추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용서연구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용서 연구를 종합·정리하려는 시도는 국내·외에서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미국 상담심리학계에서는 학문의 성격을 발전적으로 규정하고 최근의 연구주제를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노력의 일환으로 논문편람(handbook)을 펴내고 있는데(김계현, 1994), 용서 연구에 관한 논문편람 또한 나와 있다(Worthington, 2005). 그리고 용서 개입에 대한 내용분석(Wade & Worthington, 2005)과 용서 개입의 메타분석(Baskin & Enright, 2004), 그리고 결혼영역에 있어서의 용서 연구 현황 분석(Fincham, Hall, & Beach, 2006)과 생애 대인용서 및 자기용서의 발달에 관한 연구 현황 분석(Allemand & Steiner, 2010)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분석 범위가 제한적이라 전체 용서 연구의 종합적 특성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광수(2001; 2002; 2004)와 박종효(2006a) 등에 의해 몇 편의 용서 동향 연구와 개관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들의 연구는 국내·외의 용서연구를 종합하여 용서의 이해, 발달, 과정, 효과 등 내용 중심 연구영역별로 개관하고 용서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 나아갈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용서개념의 명료성, 용서와 관련변인의 관계분석, 통합적 용서 이론의 발달, 용서 연구방법과 측정의 정교화, 용서 개입이 필요한 다양한 대상에의 적용과 효과 검증 등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용서 연구의 내용이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자의 통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연구로서, 기존 용서 연구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또한 용서 연구의 흐름과 동향을 소개한 이들 연구 이후로 국내 용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그 양이 상당히 축적되었기에 이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해당 학문의 발전과 성숙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서 기능하며 특정 학문의 현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조성호, 2003).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이동혁, 유성경(2000), 조성호(2003), 유정이, 김혜경(2008), 조항, 김계현, 이자명(2009)의 연구에 사용된 분석 틀을 참고하여, 교육과 상담 및 심리 치료 영역에서의 용서 연구를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으로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 연구 빈도와 특성 그리고 연구내용별 연구대상과 연구내용별 연구방법 등을 살펴봄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심리학적 용서 연구 논문의 동향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국내 용서 연구의 연구대상별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용서 연구의 연구내용별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국내 용서 연구의 연구방법별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넷째, 국내 용서 연구의 연구내용별 연구대상의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다섯째, 국내 용서 연구의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의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방 법

분석대상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의 연구물 총 84편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학술정보 제공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사이트(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공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의 국내 학술지 카테고리에서 '상담, 교육, 심리, 발달, 과정, 치료, 훈련' 등의 단어와 '용서' 단어를 각각 결합하여 논문을 검색하였다.

나. '가'의 키워드 조합에서 누락되었을지 모르는 논문들을 찾기 위해 '가'에서 검색된 논

문들이 게재된 '학회 또는 학회지 명'과 '용서' 단어를 결합하여 다시 검색하고 새로운 논문목록을 추가하였다.

다. '나'의 학회 또는 학회지 명에서 누락되었을지 모르는 논문들을 찾기 위해 '가~나'에서 검색된 논문들의 '저자명'과 '용서' 단어를 결합하여 다시 검색하고 새로운 논문목록을 추가하였다.

라. '다'의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이나 간호학, 복지학 등과 관련된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이 검색되어 '아동', '청소년' 등의 단어 또는 해당 학회나 학회지 명을 '용서' 단어와 결합하여 다시 검색하고 새로운 논문목록을 추가하였다.

마. '가~라'의 과정을 거쳐 정리한 논문목록 중 제목에 '용서'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고, 초록과 참고문헌이 갖춰지지 않은 논문과 학술대회 논문집에 실린 논문들은 제외하고 대학에서 발간하는 연구지에 실린 논문들은 포함하였다.

바. 기독교 관련 검색자료의 경우, 수기와 설교 자료는 제외하였고 상담, 심리 등과 관련되지 않은 연구물도 제외하였다.

사. 수집한 논문 중 다른 해에 출판된 논문과 연구내용이 중복되는 논문(김광수, 2007; 안경승, 2012; 오오현, 2002)은 하나씩 제외하였다.

이렇게 하여 수집, 정리한 논문 84편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국내 용서 연구의 분석 틀

Enright(2011)는 용서 연구를 '용서의 의미, 용서 치료(용서 과정 모델), 용서 교육, 용서 공동체'의 관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한 바 있으며, Wade(2010)는 '용서의 의미, 변화의 매커니즘(용서 관련 변인), 용서 개입의 효과, 용서 개입의 문화 간 적용'으로 용서 치료의 논제를 소개하였다. 또한 김광수(2004)와 박종효(2006a)는 용서 연구를 '이해, 발달, 과정, 효과' 면에서 고찰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들의 구분은 모두 용서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상담심리학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물과 상담의 특정 주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연구물에 사용된 분석 틀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동혁, 유성경(2000)은 연구주제, 연구대상별 분류 범주를 구성하고 연구주제와 연구대상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조성호(2003)는 논문 기초사항, 연구내용, 측정도구, 피험자 정보, 통계분석방법, 참고문헌 관련사항별로 논문 평정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박수영, 이재연(2005)은 국내 놀이치료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면서 조성호(2003)의 평정 지침을 참고하였다.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2010)도 조성호(2003)의 분석 틀을 재구성하여 논문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주제, 연구방법, 통계분석 방법으로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고,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2011) 역시 이들의 분석 틀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또 김광웅,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2006)은 상담영역, 연구내용, 연구방법, 자료분석 방법으로, 유정이, 김혜경(2008)은 게재학회지,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주제, 통계분석 방법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고, 조항 등(2009)은 연구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범주를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상담 연구 동향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을 분석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담 연구 동향 논문의 분석틀을 참고하여 국내 용서 연구를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연구내용의 경우 용서연구의 주제별로 범주를 구성하였다.

분석절차

본 연구는 연구 대상 논문의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쳤다.

첫째, 본 연구자가 분석 대상 논문 총 84편을 추출하였다.

둘째, 분석을 위한 분류기준은 연역적, 귀납적 절차에 의해 결정하였다. 먼저 연구방법론 관련 서적의 사회과학에서의 연구방법 분류기준과 용서 연구를 포함한 상담심리학 분야의 기존의 동향연구에 사용된 분류기준을 토대로, 분석 자료를 검토하여 분류기준을 수정, 재구성하였다.

셋째, 이렇게 마련된 분류기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자료 중 무작위로 뽑은 10편(전체자료의 약 12%)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를 포함한 연구자 세 명(교수 2명, 석사과정생 1명)이 검토하고 부분적으로 보완하여 분류기준을 최종 확정하였다.

넷째, 분석을 위한 평정은 연구자 세 명(교수 2명, 석사과정생 1명)이 분석자료 중 무작위로 뽑은 10편을 평정하고 평정자간 일치도를 구했다(표 1 참조). 각 분류범주별 일치도는 연구대상 분류 100%, 연구내용 분류 90%, 연구방법 분류 100%였다.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전체 자료를 평정하였으며, 평정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 세 명이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표 1> 평정자간 일치도 (단위 %)

분석자*	일치도
a-b	100
b-c	90
c-a	90
계(a-b-c)	93

* a : 초등상담교육 전공 석사과정생 (연구자)
 b : 상담교육 전공 교수
 c : 교육심리 전공 교수

분류기준

가. 연구대상 분류

연구대상은 Buboltz, Miller, & Williams(1999)와 이동혁, 유성경(2000), 김계원 등(2011)이 제시한 상담관련 연구대상 범주를 참고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살펴본 후, 수정작업을 거쳐 연구대상을 발달단계, 연구대상자 특성, 소속집단에 따라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 및 가족, 종교인, 특수집단의 총 9개 범주로 구성하였다.

- 1) 취학 전 아동 :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아동
- 2) 초등학생 :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동
- 3) 청소년 : 중, 고등학교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14세에서 19세 이하인 청소년
- 4) 대학생 :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 5) 성인 : 성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
- 6) 노인 : 노년기에 속하는 일반적인 사람
- 7) 부부 및 가족 : 혈연이나 결혼을 통해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람들
- 8) 종교인 : 종교를 믿는 사람
- 9) 특수집단 : 소년원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비행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암환자, 임상간호사 등

나. 연구내용 분류

내용 영역은 연구 주제별로 연역적, 귀납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었다. 본 연구자는 김광수(2002; 2004)와 박종효(2006a)의 연구에서 제시한 영역인 용서의 이해, 발달, 과정 및 효과 영역을 바탕으로 분석 대상 논문을 살펴본 결과, 김광수와 박종효가 제시한 영역이 적합하다고 결론내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영역을 더 추가하여 용서의 '이해연구, 발달연구, 과정연구, 효과연구, 관련 요인 연구, 상담방법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척도 개발연구, 개관연구'로 분류기준을 구성하였다.

- 1) 이해연구 : 용서의 본질과 의미의 고찰 및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 2) 발달연구 :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관한 연구
- 3) 과정연구 : 용서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연구
- 4) 효과연구 : 용서상담 혹은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연구
- 5) 관련 요인 연구 : 용서와 관련있는 요인을 탐색하거나 용서와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
- 6) 상담방법연구 : 용서를 위한 상담기법과 전략에 관해 논의한 연구

- 7) 프로그램 개발연구 : 용서상담 또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8) 척도 개발연구 : 용서 관련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9) 개관연구 : 용서 연구결과들을 집약, 정리하여 개관 또는 현황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연구

다. 연구방법 분류

김계현(2011), 김석우, 최태진(2007), 성태제, 시기자(2011)의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바탕으로 김광웅 등(2006), 조항 등(2009), 유정이, 김혜경(2008)의 연구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분석 대상 논문을 살펴본 후, 수정 작업을 거쳐 연구 설계 및 방법에 따라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개발연구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 1) 문헌연구 : 기존의 연구들을 개관하거나 문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분석하는 연구
- 2) 조사연구 : 어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 면접 등의 방법으로 연구문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속성이나 행동 또는 태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
- 3) 실험연구 :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 특정 변인을 변화 또는 조작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
- 4) 사례연구 : 단일 및 소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귀납적 근거이론방식과 현상학적 연구 포함)
- 5) 개발연구 : 프로그램 개발 또는 측정도구의 개발과 그 타당화 연구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논문의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의 경향성 파악을 위해 각 분류범주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대상과 연구내용, 그리고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도별, 각 분류범주별 변화 추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꺾은선그래프를 함께 제시하였다.

각 분류범주에 대한 평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 분류의 경우, 단위 연구마다 한 가지 이상의 분류범주에 해당하면 중복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분류의 경우, 모든 자료가 하나의 분류범주로만 분류되도록 하였다.

결 과

용서 연구 논문의 게재 현황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용서 연구 논문 수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용서 연구물이 출판된 1990년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출판된 분석대상 논문의 총 수는 84편이었다. 1990년 이후 최초 10년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용서 연구 논문은 총 3편으로 매우 적었으나,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증가하여 2009년에는 총 10편의 논문이 출판되었고, 그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용서 연구 논문이 출판되었다. 또한 2009년 이후 최근 4년간 출판된 논문이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국내 용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수

연도	90	95 ¹⁾	98 ²⁾	01 ³⁾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계
논문 수	1	1	1	1	3	1	6	7	6	6	8	10	12	10	11	84
(%)	(1.2)	(1.2)	(1.2)	(1.2)	(3.6)	(1.2)	(7.1)	(8.4)	(7.1)	(7.1)	(9.5)	(11.9)	(14.3)	(11.9)	(13.1)	

1) - 3) 91-94, 96-97, 99-2000년도의 경우, 분석대상 연구물이 출판되지 않았음.

학술지별 게재 논문의 분포는 표 3과 같다. 전체의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 ‘한국심리학회지’는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지,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지 등 7종의 한국심리학회지를 한 항목으로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들 학회지는 각각 독자적으로 분리 출범한 분과학회에서 발행한 학회지로(조성호, 2003), 이들을 개별 학회지로 간주한다면 용서 연구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회지는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전체 논문의 11.9%를 차지하는 ‘교육심리연구’라 할 수 있다. 전체의 20.2%에 해당하는 ‘기타 학회지’는 ‘교육방법연구’, ‘청소년상담연구’ 등 15종의 학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용서 연구물이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대학 연구지에 실린 논문은 전체의 7.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소속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연구자 소속 관련 사항은 김계원 등(2011)의 범주를 바탕으로 기록하였으며 ‘학위논문’ 범주의 경우, 논문에 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이라고 표기된 경우에 한하여 이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자가 국내 대학교 소속인 논문이 62편(73.8%)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기관 소속의 경우, 1편(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학술지별 게재 논문의 분포

학술지	연도													계(%)											
	90	91	92	93	94	95	96	0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한국심리학회지 ¹⁾	-	-	-	-	-	1	-	-	-	-	-	-	-	1	1	1	1	1	1	2	3	4	6	5	26(31.0)
교육심리연구	1	-	-	-	-	-	-	-	-	-	-	-	1	-	2	-	3	2	-	-	1	-	-	-	10(11.9)
상담학연구	-	-	-	-	-	-	-	-	-	-	-	-	-	-	-	1	-	-	-	-	3	1	-	2	7(8.3)
교육학연구	-	-	-	-	-	-	-	-	-	-	-	1	-	-	-	-	-	-	1	1	-	-	-	-	3(3.6)
청소년학연구	-	-	-	-	-	-	-	-	-	-	-	-	-	-	-	-	-	-	-	-	-	-	2	1	3(3.6)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	-	-	-	-	-	-	-	-	-	-	-	-	-	1	-	-	-	-	-	1	1	-	-	3(3.6)
한국기독교 신학논총	-	-	-	-	-	-	-	-	-	-	-	-	-	-	2	-	-	-	-	1	-	-	-	-	3(3.6)
목회와 상담	-	-	-	-	-	-	-	-	-	-	-	-	-	-	-	-	3	-	-	-	-	-	-	-	3(3.6)
복음과 상담	-	-	-	-	-	-	-	-	-	-	-	-	-	-	-	-	-	-	-	2	-	1	-	-	3(3.6)
기타 ²⁾	-	-	-	-	-	-	-	-	1	-	-	-	2	-	-	-	2	1	2	3	3	1	2	17(20.2)	
대학 연구지	-	-	-	-	-	-	-	-	-	-	-	-	-	-	-	2	-	1	-	-	-	1	1	1	6(7.1)
계(%)	1	-	-	-	-	1	-	-	1	-	-	1	3	1	6	7	6	6	8	10	12	10	11	84	
	(1.2)					(1.2)			(1.2)			(1.2)	(3.6)	(1.2)	(7.1)	(8.3)	(7.1)	(7.1)	(9.5)	(11.9)	(14.3)	(11.9)	(13.1)		

- 1)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9,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5,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5,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3,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2,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1, 한국심리학회지 : 학교=1,
- 2) 교육방법연구, 청소년상담연구, 초등교육연구, 초등상담연구, 대학과 선교, 신학과 실천, 신학사상, 인간발달연구, 간호행정학회지, 정신간호학회지, 중앙간호학회지,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연구, 한국모자보건학회지, 한국보육지원학회지

<표 4> 연구자 소속별 분석대상 논문의 분포

연구자 소속	국내 대학교	상담기관	연구소	학위논문 ¹⁾	계
논문 수(%)	62(73.8)	1(1.2)	5(6.0)	16(19.0)	84

1) '학위논문'의 경우, 논문에 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이라고 표기된 경우에 한함.

연구대상의 분포와 특성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용서 연구 논문의 연구대상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84편의 전체 논문 중 문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논문, 즉 연구대상이 제시되지 않은 논문들을 제외

하고 총 62편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한 연구에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의 연구대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각각을 별도의 논문으로 간주하여 총 70개의 연구대상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6편(37.1%)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이 13편(18.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초등학생 11편(15.7%), 청소년 6편(8.6%), 특수집단 5편(7.1%), 종교인 4편(5.7%), 부부 및 가족 3편(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취학 전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각각 1편(1.4%)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구대상인 대학생이,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 성인의 2배에 해당하며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전체의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보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편 종교인의 범주에 해당하는 논문들은 모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표 5> 연구대상별 논문 수¹⁾

연구 대상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 및 가족	종교인	특수집단	계 ²⁾
논문 수 (%)	1 (1.4)	11 (15.7)	6 (8.6)	26 (37.1)	13 (18.6)	1 (1.4)	3 (4.3)	4 (5.7)	5 (7.1)	70

- 1) 연구대상이 제시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한 62편의 논문에 제시된 70개의 연구대상을 분석대상으로 함.
- 2) 한 연구가 두 가지 이상의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중복 분류하였으며 각기 별도로 논문 수 계산에 포함시킴.

연구내용의 분포와 특성

국내 용서 연구의 연도별 연구내용을 분석한 표 6에 의하면, 국내 용서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진 주제는 관련요인 연구(32.1%)이고, 그 다음으로 효과연구(20.2%), 이해연구(17.9%), 척도개발연구(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발달연구(1.2%)와 과정연구(22.4%)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대부터 조금씩 용서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연구내용도 다양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각 연구내용의 연도별 논문 수를 보면 효과연구, 관련요인 연구, 그리고 척도개발연구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논문 수가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해연구는 2010년 이후 연구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달연구는 1990년에 1편이 게재된 이후로 연구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으며, 개관연구 역시 2001년부터 4년간 해마다 꾸준히 1편씩의 연구물이 나오다가 2006년 이후로는 연구물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2000년대 중·후반에 3편의 연구물이 나온 이후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과정연구의 경우 논문 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앞서 용서 연구 논문의 연도별 게재 현황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용서 연구의 논문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연도에 따른 연구내용별 논문 수만으로는 각 연구내용의 비중과 추이를 살펴보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총 84편의 논문 중 전체의 10%를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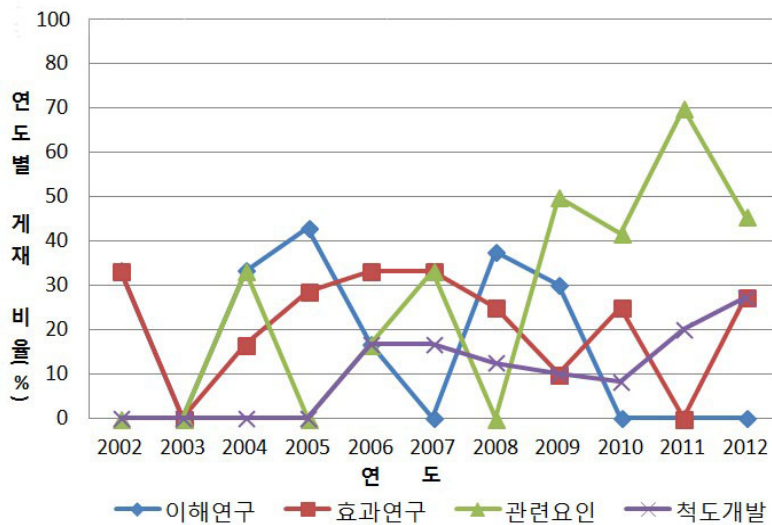
<표 6> 연도에 따른 연구내용

연도	연구내용									계
	이해연구	발달연구	과정연구	효과연구	관련요인 연구	상담방법 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	척도 개발연구	개관연구	
1990	-	1(100.0)	-	-	-	-	-	-	-	1
1995 ¹⁾	1(100.0)	-	-	-	-	-	-	-	-	1
1998 ²⁾	1(100.0)	-	-	-	-	-	-	-	-	1
2001 ³⁾	-	-	-	-	-	-	-	-	1(100.0)	1
2002	1(33.3)	-	-	1(33.3)	-	-	-	-	1(33.3)	3
2003	-	-	-	-	-	-	-	-	1(100.0)	1
2004	2(33.3)	-	-	1(16.7)	2(33.3)	-	-	-	1(16.7)	6
2005	3(42.9)	-	-	2(28.6)	-	1(14.3)	1(14.3)	-	-	7
2006	1(16.7)	-	-	2(33.3)	1(16.7)	-	-	1(16.7)	1(16.7)	6
2007	-	-	-	2(33.3)	2(33.3)	-	1(16.7)	1(16.7)	-	6
2008	3(37.5)	-	1(12.5)	2(25.0)	-	-	1(12.5)	1(12.5)	-	8
2009	3(30.0)	-	-	1(10.0)	5(50.0)	-	-	1(10.0)	-	10
2010	-	-	-	3(25.0)	5(41.7)	3(25.0)	-	1(8.3)	-	12
2011	-	-	1(10.0)	-	7(70.0)	-	-	2(20.0)	-	10
2012	-	-	-	3(27.3)	5(45.5)	-	-	3(27.3)	-	11
계 (%)	15 (17.9)	1 (1.2)	2 (2.4)	17 (20.2)	27 (32.1)	4 (4.8)	3 (3.6)	10 (11.9)	5 (6.0)	84

1) - 3) 91-94, 96-97, 99-2000년도의 경우, 분석대상 연구물이 출판되지 않았음.

는 네 가지 주요 연구내용에 대해 연도별 게재 비율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었다(그림 1 참조). 2002년부터 나타난 이유는 1990년대의 경우 용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2년에 연구물 수가 3편으로 늘어나면서 용서 연구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각 연구내용이 다루어진 비율을 살펴보면, 이해연구의 경우 약 3-4년을 주기로 '고 → 저'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며, 효과연구는 2003년 이후 오름세를 보이다가 2007

년을 기점으로 하락하여 2009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고 → 저 → 고'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물이 나오지 않은 2003, 2011년을 제외하면 평균 25.8%의 게재율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고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총 게재율이 가장 높은 관련요인 연구는 '고 → 저'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나 2009년 50%, 2011년 70%의 게재율을 보이며 높은 증가 추세에 있고, 척도개발 연구는 2006년에 첫 연구물이 출판된 이후, 2010년까지는 약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0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주요 연구내용의 연도별 게재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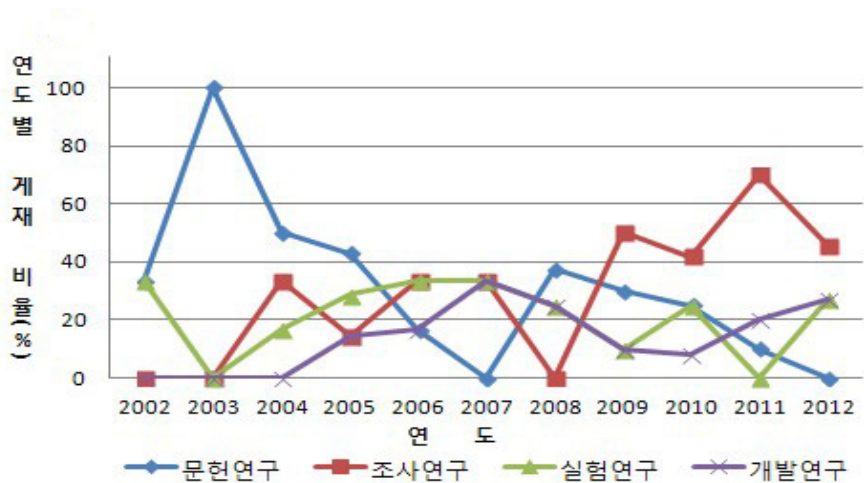
연구방법의 분포와 특성

국내 용서 연구의 연도별 연구방법을 분석해보면 표 7과 같다. 총 5개의 범주 중 조사연구가 30편(35.7%)으로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22편, 26.2%)와 실험연구(17편, 20.2%), 그리고 개발연구(13편, 15.5%)도 높은 분포를 보였다. 반면 사례연구는 2편(2.4%)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국내 용서 연구가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문헌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연구방법의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2000년대 초·중반이후로도 문헌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용서연구에서 다른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일 늦게 연구가 시작된 개발연구는 매년 1-3편의 논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도에 따른 연구방법

연도	연구방법					계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개발연구	
1990	-	1(100.0)	-	-	-	1
1995 ¹⁾	1(100.0)	-	-	-	-	1
1998 ²⁾	1(100.0)	-	-	-	-	1
2001 ³⁾	1(100.0)	-	-	-	-	1
2002	1(33.3)	-	1(33.3)	1(33.3)	-	3
2003	1(100.0)	-	-	-	-	1
2004	3(50.0)	2(33.3)	1(16.7)	-	-	6
2005	3(42.9)	1(14.3)	2(28.6)	-	1(14.3)	7
2006	1(16.7)	2(33.3)	2(33.3)	-	1(16.7)	6
2007	-	2(33.3)	2(33.3)	-	2(33.3)	6
2008	3(37.5)	-	2(25.0)	1(12.5)	2(25.0)	8
2009	3(30.0)	5(50.0)	1(10.0)	-	1(10.0)	10
2010	3(25.0)	5(41.7)	3(25.0)	-	1(8.3)	12
2011	1(10.0)	7(70.0)	-	-	2(20.0)	10
2012	-	5(45.5)	3(27.3)	-	3(27.3)	11
계(%)	22(26.2)	30(35.7)	17(20.2)	2(2.4)	13(15.5)	84

1)-3) 91-94, 96-97, 99-2000년도의 경우, 분석대상 연구물이 출판되지 않았음.



[그림 2] 주요 연구방법의 연도별 게재 비율 변화

총 84편의 논문 중 전체의 10%가 넘는 네 가지 주요 연구방법에 대해 연도별 게재 비율을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1990년대의 경우 용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2002년부터 나타내었다. 연도별로 각 연구방법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문헌연구의 경우 2003년 이후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7년을 기점으로 증가한 후 2008년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조사연구는 약 3년을 주기로 '고 → 저'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1년에는 70%를 기록하는 등 2009년 이후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조사연구가 용서 연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연구는 2003년 이후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연구물이 나오지 않은 2003년과 2011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고른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연구는 비교적 긴 주기로 '고 → 저'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데 2002년을 시작으로 2003년과 2004년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4년을 기점으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7년 이후 하락하였고 2010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별 연구대상의 분포와 특성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를 정리한 표 8에 의하면, 전체 연구내용별 연구대상은 대학생이 37.1%로 가장 많았고, 성인 18.6%, 초등학생 15.7%, 청소년 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면, 관련요인 연구는 대학생 대상 연구가 50.0%로 가장 많았고 성인 대상 연구가 20.0%, 청소년과 종교인 대상 연구가 각각 10.0%로 나타났다. 척도개발 연구도 이와 비슷하게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각각 30.8%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15.4%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효과연구는 이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효과연구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대상은 초등학생(44.4%)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대학생(27.8%), 특수집단(11.1%)의 순이었다. 프로그램 개발연구는 초등학생(66.7%)과 종교인(33.3%)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해연구와 발달연구, 과정연구의 경우, 논문 편수가 1-3편으로 매우 적었는데 이해연구는 대학생, 성인, 부부 및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연구는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과정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 8>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대상									계(%)
	취학 전 아동	초등 학생	청소년	대학생	성인	노인	부부 및 가족	종교인	특수 집단	
이해연구	-	-	-	1(33.3)	1(33.3)	-	1(33.3)	-	-	3(4.3)
발달연구	-	-	1(50.0)	1(50.0)	-	-	-	-	-	2(2.9)
과정연구	-	-	-	-	1(100.0)	-	-	-	-	1(1.4)
효과연구	1(5.6)	8(44.4)	-	5(27.8)	1(5.6)	1(5.6)	-	-	2(11.1)	18(25.7)
관련요인 연구	-	-	3(10.0)	15(50.0)	6(20.0)	-	1(3.3)	3(10.0)	2(6.7)	30(42.9)
프로그램 개발연구	-	2(66.7)	-	-	-	-	-	1(33.3)	-	3(4.3)
척도 개발연구	-	1(7.7)	2(15.4)	4(30.8)	4(30.8)	-	1(7.7)	-	1(7.7)	13(18.6)
계(%)	1(1.4)	11(15.7)	6(8.6)	26(37.1)	13(18.6)	1(1.4)	3(4.3)	4(5.7)	5(7.1)	70

- 1) 연구대상이 사용되지 않은 논문(이해12,상담방법4,개관5,과정1)을 제외한 62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함.
- 2) 한 연구가 두 가지 유형 이상의 대상을 사용했을 경우, 중복 분류하여 각기 별도로 논문 수 계산에 포함시킴.
- 3) 연구내용 범주 중 '상담방법 연구'와 '개관연구'는 연구대상이 사용되지 않아, 항목에서 제외함.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의 분포와 특성

표 9는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의 분포를 알아본 것이다. 전체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은 조사연구(35.7%)가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26.2%) 실험연구(20.2%), 개발연구(15.5%)의 순이었다. 한편 사례연구(2.4%)는 매우 적었다. 각 연구내용별로 살펴보면, 이해연구는 문헌연구(80.0%)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사연구(13.3%)와 사례연구(6.7%)도 있었다. 과정연구는 문헌연구(50.0%)와 사례연구(50.0%)로 이루어졌다. 그 이외에는 모두 각 연구내용에 해당하는 연구방법이 하나로 수렴되었는데, 발달연구는 조사연구로 이루어졌으며 효과연구는 실험연구, 관련요인 연구는 조사연구, 상담방법 연구는 문헌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와 척도 개발연구는 개발연구, 개관연구는 문헌연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연구내용에 따른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방법					계(%)
	문헌연구	조사연구	실험연구	사례연구	개발연구	
이해연구	12(80.0)	2(13.3)	-	1(6.7)	-	15(17.9)
발달연구	-	1(100.0)	-	-	-	1(1.2)
과정연구	1(50.0)	-	-	1(50.0)	-	2(2.4)
효과연구	-	-	17(100.0)	-	-	17(20.2)
관련요인연구	-	27(100.0)	-	-	-	27(32.1)
상담방법연구	4(100.0)	-	-	-	-	4(4.8)
프로그램개발	-	-	-	-	3(100.0)	3(3.6)
척도개발연구	-	-	-	-	10(100.0)	10(11.9)
개관연구	5(100.0)	-	-	-	-	5(6.0)
계(%)	22(26.2)	30(35.7)	17(20.2)	2(2.4)	13(15.5)	84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용서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논문 84편을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연구내용별 연구대상과 연구내용별 연구방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용서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수는 2000년대 들어 조금씩 증가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상당한 양적 팽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용서 주제와 용서 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은 대학생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성인, 초등학교, 청소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학 전 아동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동혁, 유성경(2000), 조성호(2003), 조남정 등(2010), 김계원 등(2011)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상담심리학 연구대상의 경향과 일치한다. 이는 용서 연구 논문의 연구자 소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대학교 소속 연구자의 논문이 분석대상 논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대학생이 주된 연구대상인 것은 자연스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동혁, 유성경(2000)은 연구대상이 특정 대상으로 편중될 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고 하였고, Munley(1974) 또한 상담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 연령에 걸쳐 연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들

의 제언은 국내 용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도시화, 핵가족화로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은 더욱 주목해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은 인생 주기의 다른 단계에 비해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는 노인의 특성상, 노화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상담 시 많은 인내와 기술을 요하며, 이동이 어렵고 건강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 그리고 가정 문제의 노출에 대한 수치심과 저항이 크고 행동이나 사고의 경직성 경향이 높아(박차상 등, 2002) 상담과정 상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 등에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연구는 용서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문제의 심각성 등에 직면한 우리 사회의 노인복지와 안녕 증진의 차원에서 볼 때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인생의 길이란만큼 상처 경험도 많고 일제시대, 한국전쟁, 민주화운동 등 격동의 시대를 겪은 산 증인으로, 이들에 대한 연구는 개인 내적인 아픔을 넘어 우리 역사의 아픔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외국 용서 연구(Hebl, & Enright, 1993; Enright & Fitzgibbons, 2000 ; Enright, 2012)에서는 상처와 회한이 많은 노인대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상담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볼 때, 용서는 앞으로 더욱 주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과 더불어 아주 미흡한 논문 편수를 보인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이들 대상의 용서 연구물이 거의 없는 이유를 이 시기 아동의 발달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Piaget는 유아기의 사고가 자기중심적이고 가역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타인의 관점 수용 능력이 필요하므로, 연구자들에게 유아기는 용서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으로 여겨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연구(Field, 1987, 정옥분, 2013에서 재인용)에서는 유아도 자신에게 친숙하고 단순한 내용에 대해서는 타인의 관점을 고려할 수 있으며 훈련을 통해 인지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되며, Enright(2012)는 용서교육 과정을 제시하여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용서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용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령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군인, 재소자 등 다양한 특성이나 특수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에 대한 처치 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라 처치 효과가 달리 나타난다면 그 연구결과를 특정 대상 전집간에 달리 일반화시켜 용서 교육과 상담 및 심리치료의 적용에 있어 각 집단 별로 중요한 실제적 지침이나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체의 15.7%로 나타난 것은, 이동혁, 유성경(2000), 조성호(2003), 조남정 등(2010), 김계원 등(2011)이 분석한 상담심리학 연구대상 경향에서 초등학생 사용 비율이 각각 전체의 3.6%, 5.28%, 11.6%, 3.7%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효과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연구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한 대상이 초등학생일 정도로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는데, 국내 용서 연구에서 이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광수(2010), 김광수, 하요상(2006)과 김광수, 김경집(2007)은 아동기는 대인관계가 확장되는 시기로, 이 때 잘 형성된 대인관계는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며 후속 대인관계 및 정서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용서 교육의 필요성이 큰 시기라고 하였다. 이범수, 김명식(2009) 또한 용서 프로그램의 원활한 실시와 적용을 위해서는 인지, 도덕적 추론 능력이 어느 정도 발달되는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아동기는 성격 형성 시기이므로 더욱 중요하다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대상 경향분석에서 초등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온 데에는 초등학생이 예방 발달적 목적을 위한 용서 교육의 주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기 성격 형성 및 인간발달의 중요성 인식과 강조에서 비롯된 것인바, 실제로 아동기가 다른 발달시기보다 용서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는 더 체계적인 논의와 경험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서 교육 이외에, 용서 상담 및 심리 치료에 있어서의 더욱 효과적인 대상을 살펴보는 것은 상담의 실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대상을 몇 가지 범주에 따라 빈도분석하고 대상별로 어떤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 용서 연구의 효과와 관련된 각 변인들에 대한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 살펴 용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어떤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용서 연구 논문 중 상담기관 소속 연구자의 논문이 극소수로 나타난 것은, 용서 상담 및 심리치료의 주요 대상이어야 하는 실제 내담자 대상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 용서 연구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상담의 현장에서 개인, 가족, 부부, 더 나아가 공동체의 문제 해결과 치유에 용서 상담의 모형과 실제적 상담 과정 및 절차를 소개,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내용은 관련요인 연구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다음으로 효과연구, 이해연구, 척도개발연구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에서도 관련요인 연구와 척도개발연구는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주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관련요인 연구가 국내 용서 연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용서 연구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용서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어떤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알아보는 것은 용서와 관련된 여러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관련요인 연구를 통해 용서의 과정에서 심리적 작용 기제를 밝히고 용서를 촉진하는 요인들을 밝혀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한 용서 프로그램과 척도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 용서연구에서 발달연구와 과정연구는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발달연구의 경우, 1990년에 1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로 연구물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용서의 발달연구는 용서에 대한 이해수준이 발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근거로 용서를 촉진할 수 있는 용서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초 역할을 해 왔다. 지금까지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지만 보다 체계적인 용서교육,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용서 발달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용서 발달 특성과 관련요인들을 밝혀낼 필요가 있다.

기존 발달 연구에서 활용된 용서 발달 수준은 가상 딜레마 상황에서의 사회인지적 발달 과정을 탐색하여 구성한 것으로, 박종효(2006a)는 용서 발달 이론의 가상 딜레마 상황과 인터뷰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가상 딜레마 상황은 실제 일상생활에서의 용서추론이나 용서 행동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며, 인터뷰 방식은 추론 능력보다는 표현적 언어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또, 용서 발달 유형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는 종단적 연구 대신 다양한 연령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횡단적 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데, 김광수(2001; 2002; 2004)는 종단적 연구 등을 통해 용서 발달 수준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따라서 가상 딜레마 상황에서의 용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실제 상황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실제 상황에서 용서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는 연구, 또는 용서 발달 수준을 직접 검증하는 종단적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용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도식이 연령뿐만 아니라 문화, 상황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다양한 수준에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 문화에서의 용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 이해 수준 또는 유형을 좀 더 정교화,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오영희(2005; 2006)는 한국인의 용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용서 연구를 한국 문화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으며, 이미 우리나라 중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서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발달하며 용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실제 상황에서 용서하는 과정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펴본 바 있다(오영희, 1990). 그러나 한정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1회의 발달연구로는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고, 연령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서의 발달연구와 더불어 매우 미흡한 논문 편수를 보인 용서의 과정연구는 용서에 대한

이해 수준이 어떻게 실제 상황에서의 용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는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용서에 이르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나, 용서 척도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용서 연구에서 용서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 발달단계별 용서의 과정을 탐색하여 그에 기초한 각 대상 별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용서가 단순한 일회적 사건이 아님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종결 후 지원체제와 지지공동체 영향 등 용서 후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용서의 이해연구는 국내 용서 연구에서 꽤 많은 연구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도별로도 전반적으로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서의 심리학적 경험연구에서 Enright 등(1998)의 용서 이해와 정의가 이미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지만, 용서의 본질과 의미 및 사람들의 용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이해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시도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김광수(2002)는 아직 연구자들간에 합의된 용서 정의가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학, 신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의 용서 개념과 본질을 비교·분석하고 다학문적인 접근의 시도 및 용서의 이론과 실재를 통합한 용서 정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실제로 분석대상 논문을 보면 15편의 이해연구 중 10편이 기독교 관련 학술지에 실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독교 영역에서 용서의 심리학적 측면과 신학적 측면을 통합하여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시도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용서 개념과 학문적 개념의 차이로 인한 혼돈을 막고 상담 적용 시 내담자의 용서에 대한 오해에서 오는 저항을 최소화하며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해와 용서의 과정과 효과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이론과 실재를 통합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는 개입과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용서 이해 연구의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 개인의 행동 반응으로서의 용서(act)와 개인 내적 특성이나 품성으로서의 용서를 나누어 연구하고, 이 두 관계를 연구 분석 통합하며, 용서와 관련이 있는 인근 개념, 예컨대 용서와 사과 및 화해 등과의 차별성과 연관성 등을 밝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연구방법은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고, 문헌연구와 실험연구, 그리고 개발연구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조사연구가 200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연구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용서 연구 중 사례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는 한 대상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여 여러 변인을 동시에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각 변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현상을 실생활 맥락 속에서 경험적으로 탐구하므로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또한 관련된 행위자의 의도와 그 과정을 규명하고 조건과 관계성 등에 대한 세밀한 맥락적 분석이 가능하며, 특히

현상과 맥락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과제의 특성이 복잡할 때 도움이 된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용서 연구에 보다 풍부한 실제적 시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 논문 선정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고, 복잡하고 다양한 용서 연구를 연구대상, 연구내용, 연구방법의 몇 가지 제한된 분석틀로 파악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졌던 국내 용서 연구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미비한 부분을 확인하고 용서 연구에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용서 연구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이 특정 대상으로 편중되어 이루어지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용서 연구결과의 적용 및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령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군인, 재소자 등 다양한 특성이나 특수한 집단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덧붙여, 그 동안 용서 상담 및 심리 치료에서는 주로 용서를 하는 사람 쪽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앞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 또는 용서를 하는 사람과 구하는 사람의 상호작용, 관련 공동체 등도 모두 포함하여 용서 연구의 차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용서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대인용서뿐만 아니라 자기용서나 상황용서 등 다양한 측면의 용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대상의 특성에 따른 효과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에 사용된 대상을 몇 가지 범주에 따라 빈도분석하고 대상별로 어떤 주제의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용서의 효과, 특히 관련된 각 변인들에 대한 용서 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 살펴 용서 교육과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어떤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상담기관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용서 상담 및 심리치료 개입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사례연구가 장려되어야 한다. 사례연구는 어떤 현상에 대한 집중적 관찰과 분석을 통해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상담과정 등에 대한 질적 연구와 용서 개입이 연구대상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등은 용서에 관해 더욱 풍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다 종합적인 국내 용서 연구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실린 용서 연구 논문 중 제목에 '용서' 단어를 포함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국내 용서 연구의 전체적 동향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연구에는 제목에는 '용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논문의 주요어에 '용서' 단어가 들어간 논문들까지 포함하고,

필요하면 학위논문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분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내 용서 연구에 적합한 분석틀을 더 심도 깊게 개발하여 국내 용서 연구의 변화 추이를 일관성 있게 살펴보고 더불어 분석틀에 따른 주제 영역별 심층 분석 및 연구를 통해 용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서 교육과 상담 및 삶의 현장에 의미있고 질 높은 조력으로 환원될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주요 연구주제별로 앞으로 다루어야 할 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용서의 이해연구 영역에서는 다학문적인 용서 개념의 탐구와 용서 이론과 실제의 통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Enright 등(1998)의 용서 정의는 이들이 이론적으로 가정한 인지, 정서, 행동이라는 3요인 구조가 요인분석으로 지지받지 못했다는(오영희, 2008; 정성진, 2011)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또한 필요할 것이다. 용서의 발달연구 영역에서는 용서 이해 수준이 실제 용서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종단적 연구를 통해 용서 발달의 양상과 특성을 밝혀내고 용서 발달 수준을 직접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문화에서의 용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용서 이해 수준 또는 유형을 좀 더 정교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용서의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각 발달단계별 용서의 과정을 탐색하여 그 중핵 요인을 추출하고 각 대상별 특성에 적합한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종결 후 지원체제와 지지공동체 유무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및 과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용서의 효과연구에서는 그 효과를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방안과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각 발달단계별로 용서의 과정을 타당화, 정교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각 발달단계별 용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 검증도 프로그램 실시 대상뿐만 아니라 주변의 관련대상이나 공동체 등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용서교육에 관한 논의를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자살하는 사건이 잇따르며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학창시절의 경험은 자아개념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이후의 삶의 태도나 삶의 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이 시기의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개념의 형성과 학교폭력 예방 혹은 대처를 돕는 개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용서교육은 이들로 하여금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고 부당한 상처를 받았을 때 절망하기보다 이를 자신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아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 태도를 길러주며 더 나아가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Enright, 2012)는 점에서 학교폭력문제에 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체적 용서교육프로그램으로,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이야기를 통해 용서에 필요한 핵심 덕목들-인간 고유의 가치, 친절, 존중, 관용, 사랑-을 소개하고 토의하도록 구성한 북아일랜드 벨파스

트 용서교육과정(Enright, Gassin, & Knutson, 2003)을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광수(1999; 2010)가 Enright 용서과정모형을 기초로 개발한 용서교육프로그램이 아동용으로 재구성되어 연구, 활용되고 있다. 용서의 기초가 되는 덕목교육과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길러주고 용서의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동의 가치를 추구할 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운주, 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김계현 (1994). 상담심리학의 최근동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6(1), 142-165.
- 김계현 (2011). 상담심리학 연구 :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 학지사.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광수 (2001). 용서에 대한 고찰과 교육적 적용. 교육학연구, 39(2), 1-24.
- 김광수 (2002). 용서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심리연구, 16(2), 113-131.
- 김광수 (2004). 경험과학적 용서연구의 반성적 고찰과 제언. 교육심리연구, 18, 33-49.
- 김광수 (2007). 초등학교의 또래관계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전략과 실제 : 용서상담교육의 적용. 초등상담연구, 6(1), 19- 46.
- 김광수 (2010). 초등학교의 대인관계 문제 개선을 위한 상담전략과 실제 : 용서상담교육의 적용. 초등상담연구, 9(1), 111- 132.
- 김광수, 김경집 (2007). 용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의 용서수준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8(4), 87-109.
- 김광수, 하요상 (2006). 용서 상담교육이 아동의 용서수준과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0(4), 909-930.
- 김광용, 최명선, 류진아, 정유진 (2006). 아동 상담 연구 동향 : 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1997-2005). 놀이치료연구, 9(3), 47-65.
- 김기범, 임효진 (2006). 대인관계 용서의 심리적 과정 탐색 : 공감과 사과가 용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0(2), 19-33.
- 김남순, 조선자 (2007). 용서교육프로그램이 모 불안정 애착아동의 용서수준과 모 애착수준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연구, 45(4), 169-194.
- 김석우, 최태진 (2007).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김은설 (2010). 자기주도적 용서교육의 효과에 관한 연구-불안정 애착을 가진 여대생을 중심

- 으로. *교육심리연구*, 24(4), 1069-1088.
- 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8(1), 239-261.
- 박수영, 이재연 (2005). 국내 놀이치료 연구 경향 : 놀이치료 관련 학회지 게재논문 중심으로 (1997-2003). *한국생활과학회*, 14(1), 47-57
- 박종호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8(2), 301-322.
- 박종호 (2006a). 용서 심리이론과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개관연구. *인간발달연구*, 13(1), 117-134.
- 박종호 (2006b). Enright 용서심리검사(EFI-K)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20(1), 265-282.
- 박차상, 김옥희, 배창진, 엄기옥, 이경남, 정상양 (2002).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 학지사.
- 성태제, 시기자 (2011). *연구방법론*. 서울 : 학지사.
- 손운산 (2004). 치료, 용서 그리고 화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 241-283.
- 안경승 (2012). 결혼에서의 용서. *신학과 선교*, (11), 341-376.
- 오영희 (1990). 용서의 발달 : 친구사이의 용서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4, 247-273.
- 오영희 (1995). 용서를 통한 恨의 치유;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7(1), 70-94.
- 오영희 (2005). 한국 대학생들의 상처와 용서. *덕성여대논문집*, 34, 87-111.
- 오영희 (2006). 한국인의 상처와 용서에 대한 조사. *교육심리연구*, 20(2), 467-486.
- 오영희 (2008). 한국인 용서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4), 1045-1063.
- 오영희 (2010). 한국인 용서 척도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4(1), 1-17.
- 오영희 (2011).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개발과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6(4), 799-813.
- 오영희 (2012). 한국인 용서 척도 단축형의 규준 개발. *사회과학연구*, 17, 41-54.
- 오오현 (2002).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4, 117-150.
- 오오현 (2005).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연구. *상담학연구*, 6(1), 287-303.
- 위경선, 윤가현 (2011). 과거 상처경험에 대한 노년기 용서과정. *한국노년학연구*, 20, 63-83.
- 유정이, 김혜경 (2008). 청소년 진로상담 연구 동향 :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2000-2006). *진로교육연구*, 21(4), 43-58.
- 이경순 (1998). 용서 개념분석. *정신간호학회지*, 7(2), 325-332.
- 이경순 (2002). 용서 : 현상학적 접근. *정신간호학회지*, 11(3), 388-397.
- 이경순 (2008). 용서 과정에 대한 질적연구 :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3(1), 237-252.

- 이동혁, 유성경 (2000). 상담연구의 주제 및 연구 대상 분석 : 학위논문 및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8, 37-58.
- 이범수, 김명식 (2009). 초등학생 용서 프로그램의 효과연구. *상담학연구*, 10(3), 1683-1696.
- 이윤희, 서수균 (2012). 한국판 가족용서 척도 개발 및 가족용서와 청소년의 또래관계 사이에서 또래신뢰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4(1), 69-95.
- 장우심 (2010). 용서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분노, 불안,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1), 109-126.
- 정성진 (2011). 용서과정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옥분 (2013).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조남정, 최은미, 최희진, 장선철 (2010). 상담학의 연구 동향 분석 : '상담학연구' 학회지 게재 논문(창간년도-2009). *상담학연구*, 11(2), 507-524.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1998-2003).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수아, 권석만, 임영진 (2011). 용서신념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30(1), 1-19.
- 조항, 김계현, 이자명 (2009). 국내 진로 및 직업상담 연구 동향 분석 : 국내 상담학회 및 상담심리학회 발간 학술지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0(4), 2099-2113.
- 태영숙, 윤수정 (2006). 용서간호중재 프로그램이 여성 암환자의 희망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중앙간호학회지*, 6(2), 111-120.
- 황혜자, 김태훈 (2006). 용서훈련 집단상담이 비행청소년의 분노수준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아논총*, 42, 111-149.
- Allemand, M. & Steiner, M. (2010).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across the Lifespan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Zeitschrift fur Entwicklungspsychologie und Padagogische Psychologie*, 42(2), 63-78.
- Baskin, T. W. & Enright, R. D. (2004). Intervention Studies on Forgiveness : A Meta-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1), 79-90.
- Buboltz, W. C. Jr., Miller, M. & Williams, D. J. (1999). Content Analysis of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therapy*, 46(4), 496-503.
- Enright, R. D. (2011). *Psychological Science of Forgiveness : Implications for Psychotherapy and Education*. Rome : Pontificia Universita della Santa Croce.
- Enright, R. D. (2012). *The Forgiving Life : A Pathway to Overcoming Resentment and Creating a Legacy of Lov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Enright, R. D., Freedman, S., & Rique, J. (1998). The Psychology of Interpersonal Forgiveness. In Enright, R. D. & North, J. (Eds.), *Exploring Forgiveness*. (pp. 46-47). Madison, WI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Enright, R. D., & Fitzgibbons, R. P. (2000). *Helping Clients Forgive : An Empirical Guide for Resolving Anger and Restoring Hope*. 방기연(역). (2011). 용서심리학 : 내담자의 분노 해결하기. 서울 : 시그마프레스.
- Enright, R. D., Gassin, E. A., & Knutson, J. A. (2003). Waging peace through forgiveness education in Belfast, Northern Ireland : A review and proposal for mental health improvement of children.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13, 51-61.
- Fehr, R., Gelfand, M. J., & Nag, M.(2010). The Road to Forgiveness : A Meta-Analytic Synthesis of Its Situational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Psychological Bulletin*, 136(5), 894-914
- Field, T. M.(1987). Affective and interactive disturbances in infants. In Joy D. Osofsky (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2nd ed.). New York: Wiley.
- Fincham, F. D., Hall, J., & Beach, S. R. (2006). Forgiveness in Marriage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Family relations*, 55(4), 415-427.
- Hall, J. H. , & Fincham, F. D.(2005). Self -forgiveness :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Hall, J. H. , & Fincham, F. D.(2008). The Temporal Course of Self -forgiven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7(2), 174-202.
- Hebl, J. H., & Enright, R. D. (1993). Forgiveness as a psychotherapeutic goal with elderly females. *Psychotherapy*, 30(4), 658-667.
- Munley, P. H. (1974). A Content Analysis of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4). 305-310.
- Wade, N. G. (2010). Introduction to the Special Issue on Forgiveness in Therap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32(1), 1-4.
- Wade, N. G. & Worthington, E. L. Jr. (2005). In Search of Common Core : A Content Analysis of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Psychotherapy :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42(2), 160-177.
- Worthington, E. L. Jr. (2005). *Handbook of forgiveness*. New York : Routledge.

Trends of Research on Forgiveness in Korea : Analysis of Korean Journals from 1990 to 2012

Young-Su Lee

Seoul Mapo Elementary School

Kwang-S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trends of psychological research on forgiveness in Korean journals to provide the information about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forgiveness studies in Korea. A total of 84 articles had been categorized according to research objects, research contents(research subjects), an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The most common research objects were university students, adul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adolescents, but very few research with the elderly or preschool children were conducted. (2) The main research subjects were studies on related factors, effects, comprehension, and the development of scale. (3) In the area of research methods, a high frequency of publications appeared with survey research, literature research, experimental research, and developmental research but the scant area was case study. Lastly, some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ture forgiveness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forgiveness, research trends, current status